

kotexlive 2009 제작을 마치고

도은이 아빠

2009년 11월 16일

요약

kotexlive 2009를 제작하였다. 성공적으로 인스톨된 것을 보고 테스트 겸하여 간단한 문서를 하나 작성한다. 설치된 시스템으로부터 texworks의 template을 통하여 작성하였다.

1 동기

원래 나는 올해 tex installer 비슷한 것을 만들 계획도 없었고 실제로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kc2008plus는 그것이 “倫理的 義務”라는 생각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 마침내...

2 이런저런 사정

일단 1기가짜리 압축파일과 설정 프로그램을 분리한 사연. 설정 부분을 계속 수정하려다 보니 시험을 위한 설치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다. 그래서 파일 복사 부분은 아예 따로 만들었는데, 뭐 그다지 불편하지 않다. 2기가가 약간 넘는 크기를 1기가로 압축했으니 압축률 50%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7-zip 덕분이다.

설정 프로그램은 advanced installer free로 만들었다. 꼭 필요한 몇 가지 기능이 free 버전에서는 빠져 있어서 그건 그냥 배치파일로 postprocessing 하도록 해버렸다. 이것도 그럭저럭 괜찮네.

나머지 문제는 별로 없다. 자잘한 추가 설정 파일들은 어쩔 도리가 없고 버그가 있다면 나중에 수정하면 되겠지. 다만 texlive의 업데이트 속도가 너무 빨라서 특정 시점에 고정시켜놓은 인스톨러 설치 후에 업데이트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kotexlive-all.exe 부분을 잘 관리하면 될 것이다.

워크숍 준비 때문에 그 전날 날밤을 깎고, 그 답날은 또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다. 수면부족이다. 회장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생활 패턴을 바꿀 나이가 되지 않았냐?”고 하셨는데 그게 될 리가 없지. 아무튼 나중에 수정한 소소한 버그들은 몽롱한 상태에서 메모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잊어버려서 생긴 것들이다.

texworks에 한글 철자검사기를 넣었는데 windos 7에서는 잘 동작하지 않았다. vista에서도 잘 되지 않았던 기억이 있으므로 그런가보다는 하겠는데, 잘 났으면 좋으련만. texworks의 template 추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템플릿이 없을 때랑 있을 때 문서 작성을 처음 시작하는 느낌이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 이 템플릿이 급조한 거라 별로 신통찮다는 거다. 누군가 좀 손을 봐주시면 좋겠다. 아무튼지, 이 템플릿을 불러오는 순간 기본 컴파일 엔진이 xelatex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pdflatex 용 템플릿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컴파일 엔진이 바로 pdflatex으로 바뀐다. 템플릿 좋다!!

이런 일은 참 재미없다. 사실 나 자신은 이 프로그램 없이도 texlive 2009를 운영하는 데 별 불편을 느끼지 못해왔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편리한 인스톨은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 되어 버려서 이에 대한 수요가 제법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로 더 중요한 것은 설치가 아니라 운용인데.

확실한 것은, texlive 2009를 tl-installer를 통하여 설치하는 것보다는 시간도 적게 걸리고 더 안전하게 인스톨될 거라는 것이다. 제작자의 편견이 깃든 판단이겠지만,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한다.

3 감사의 말

이 일을 하도록 지시하신 조인성 회장님께 감사한다. 회장님이 하라고 안 하셨으면 절대 안 했을 거다.

kotexlive 2009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이기황 이사께 감사한다. 이것으로 한숨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

KC2008과 KC2008Plus의 중심 프로그램 KCmenu를 만들고 계시는 likesam 님께 감사한다.

테스트를 마다 않으시는 분들, 특히 KC2008Plus *pre-alpha* 버전을 주저않고 설치하여 테스트해주신 이주호, 진영학 님께 감사한다. 진영학 님은 당일 집까지 태워다주셨다.

끝으로 작업 중에 바탕 화면으로 피로를 달래준 카호 짱의 *KAWAII-ness*에 감사하면서!¹



¹그림은 wallcoo.com(인가?)의 free download 섹션에 있는 것을 썼다.